

혁신도시 기관들 신규채용 나섰지만...좁아진 채용문

7개 기관 1381명 채용 계획...체험형 인턴 2408명 뽑아 한전 올 842명...지난해 지역인재 119명 전체 대상 27%

올해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이 30%로 올라갔지만 전체 채용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7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일반 정규직 1222명과 고등학교 졸업 159명 등 1381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채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 체험형 인턴은 2408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이날부터 닷새 동안

안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공개됐다.

지난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던 채용정보박람회에서는 나주 혁신도시 8개 기관이 일반 정규직 1393명과 고졸 199명 등 1592명 채용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채용 계획은 전년에 비해 211명(-13.3%) 가량 축소된 규모로 발표된 셈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일반 정규직 729명과 고졸 113명 등 842명을 뽑을 계획

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계획 1100명(일반 938명·고졸 162명) 보다 258명(-23.5%) 감소한 수치다.

한전은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439명 가운데 27.1%에 달하는 119명을 지역 출신으로 채용하며 목표 비율(27%)을 상회했다.

올해 일반 정규직의 경우 4직급(사무·기술)과 5직급(전원)으로 나눠 상반기 동안 원서접수와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치른다. 4직급 대졸수준 공채 기준 전일제 연봉은 약 3708만원 수준이다.

고졸 채용은 올 3분기 동안 진행한다. 전일제 연봉은 약 3367만원으로, 전기·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1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사무·기술 직무에서 석 달 동안 근무하는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300명 늘어난 1700명으로 세웠다.

전년보다 채용계획을 늘려 잡은 기관들도 있다.

한전KPS는 전년 230명(일반 195명·고졸 35명) 보다 85명 늘어난 315명(일반 271명·고졸 44명)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신입사원의 연봉은 일반 정규직은 4063만원(성과급 제외), 고졸 3579만원 등이다.

올 하반기 예정된 사무행정·기술지원 직무 부문 체험형 인턴은 전년대와 같이 600명을 뽑기로 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올해 일반 정규직 20명과 고졸 2명을 뽑는다. 이는 전년 계획 14명(일반 12명·고졸 2명) 보다 8명 늘어난 수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일반 정규직 16명을 뽑으며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

이외 올해 채용 계획을 발표한 공공기관·공기업 등을 살펴보면 한전KDN은 일반 정규직 160명과

무기계약직 2명, 체험형 인턴 50명을 잠정적으로 뽑기로 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일반 12명, 체험형 인턴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반 정규직 14명(신입 5명·경력 9명)과 무기계약직(경력) 4명을 뽑는다. 전년대와 달리 올해 채용계획을 이번 박람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기관은 전력거래소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이 있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2만6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체험형 인턴도 2만2000명 이상을 새로 뽑는다.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publicjob.kr)에는 1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모집

물류비 70%·최대 1400만원 지원

중소기업의 물류난을 극복하기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한다.

2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 추경 편성으로 전년 대비 10억원 늘어난 119억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상운임이 5배, 항공운임이 3배 증가하는 등 국제 물류난에 대응해 지난해 물류바우처를 신설한 바 있다. 국제물류비가 20만원 이상 발생한 중소기업은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물류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물류비 지출액의 70% 상시 실시간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은 국제물류비가 발생할 때마다 물류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제요건과 물류비 지출 증빙만을 검토해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설날 정 나눔'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산·왼쪽 두 번째)는 도농상생 국민운동본부와 24일 광주 광산구청을 찾아 '설날 정 나눔 행사'를 열고 우리 농산물로 만든 떡갈과 달걀 등 2000만원 상당 꾸러미 400상자를 취약계층과 고령 농업인들에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코스피, 13개월만에 2800선 붕괴

24일 코스피가 13개월 만에 28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29포인트(1.49%) 내린 2792.00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8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2020년 12월23일(2759.82) 이후 13개월 만이다. 장중 한때는 2780.68까지 밀리기도 했다.

전 거래일 뉴욕 증시 하락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경제감이 장 초반부터 국내 증시를 짓눌렀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30%)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1.89%), 나스닥 지수(-2.72%)가 일제히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35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섹터도 8000억원 넘게 팔아치웠다.

개인도 136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은

5922억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개인의 매물을 받아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45포인트(2.91%) 내린 915.40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3월11일(908.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하루 낙폭은 지난 10월6일(-3.46%) 이후 석 달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1400억원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18억원, 426억원 순매수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92.00 (-42.29)
↓ 코스닥	915.40 (-27.45)
↓ 금리(국고채 3년)	2.112 (-0.020)
↑ 환율(USD)	1196.10 (+2.10)

비트코인 하락 지속...4310만원대 거래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하며 431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24일 오후 3시18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4314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14% 내렸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1.13% 떨어진 4311만6000원이다.

비트코인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 달 28일 증가(5827만4000원·업비트 기준)와 비교했을 때 약 26% 떨어졌다.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해 11월19일 가격(업비트 8270만원·빗썸 8247만7000원)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국내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도 1.5%대

하락률을 보이며 300만원 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올해 긴축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두고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로 선회할 것이라며 전망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투자된 자본이 탈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은 '차세대 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한때 나오기도 했으나, 미국의 긴축 정책에 반응하고 미국 증시의 동조화 현상을 보여 위험자산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첫 창고형 할인점 '맥스' 개점 이틀 매출 316% 증가

빵집 하루 매출만 1300만원

광주지역 첫 창고형 할인점을 내건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이 개점 이틀 동안 기존의 4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에 따르면 개점 첫날과 이틀날인 21~22일 점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운영된 마트 매출보다 316.6% 증가했다.

방문객 역시 마트 때보다 307.9% 증가했다. 광주 첫 창고형 할인점 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첫날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점포는 4~5명의 인력을 주차장 인근에 배치했지만 몰려드는 차량 때문에 주요 시간대에는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이 기간 동안 축산 매출이 400% 이상 증가했다. 밀키트(가정간편식)를 필두로 한 가공식품 매출도 360% 이상 늘었다.

유명 요리사인 강레오 롯데마트 푸드이노베이션(FIC) 센터장이 지난 6개월 동안 개점 준비를 한 직업빵집 '퐁미소'는 하루 평균 매출 1300만원을 찍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맥스 상무점의 이 같은 흥행은 기존 회원제 매장보다 달리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상품 중량을 다 창고형 매장의 70% 가량으로 줄여 3~4인 가구 수요를 맞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처음 겨냥했던 30~40대 고객의 호응이 좋았다"며 "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중·대형 포장 제품에 대한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층도 있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